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주민설명회

내달 5일까지 전주시 33개 동·혁신도시 등 34곳 대상

전주시가 시민들의 실제 교통수요와 이동패턴에 맞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마련하고, 운행노선 확정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주시는 완주군과 공동으로 마련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에 대한 시내버스 이용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전주시 33개 동과 혁신도시 등 34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송천2동과 송천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노선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노선개편의 핵심은 시민들의 이동수요에 맞춰 △기존 미운영지구에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신규 개발지구의 노선 확대 △완주군 지역 간 연계노선이 신설된다는 점이다.

이날 주민설명회가 열린 송천1·2동의 경우에도 그간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던 송천동-가련대거리-동산동 노선과 송천동-하가지구-서부신시가지, 송천동-서신동-서부신시가지(전주대) 노선 등이 신설된다.

송천동 주민들은 그간 버스를 이용해 동산동, 서신동 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북대 앞 버스정류장 등에서 환승을 해야 했다. 또, 서부신시가지와 전주대 방항으로 갈 경우에는 팔달로 중심의 긴 노선으로 인해 객사·남부시장 등을 경유하는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시는 이번 노선개편으로 인해 송천동 주민들의 주요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버스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돼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완주 노선개편TF팀 운영 등 완주군과의 협의를 거쳐 구도심인 팔달로·기린대로 위주의 노선집중과 완주군 외곽 지역 연결노선 과다로 인한 불합리한 노선을 개편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운행에 초점을 맞춘 노선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하가지구 등 새로운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반영해 신규개발지 연계노선을 강화했다.

시는 19일 평화1동 주민센터에서 평화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선개편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0일에는 인후1동과 우아·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직장인과 학생 등 개인사정에 의해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못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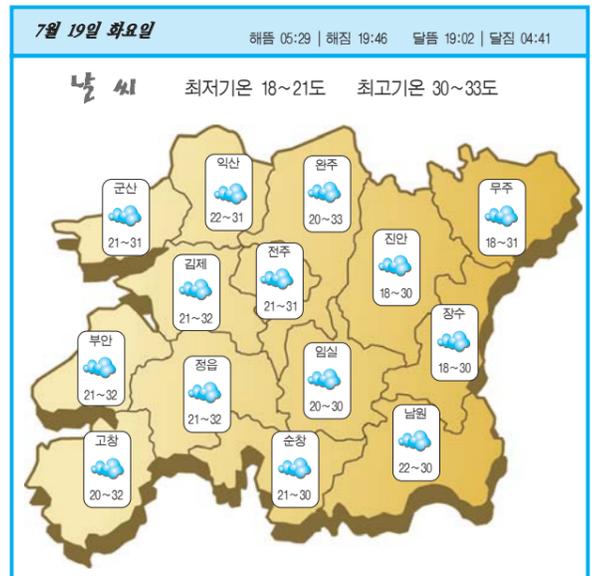


친구 생각하는 마음 담아 18일 오전 한 여고에서 학교폭력예방과 친구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플래시몹 행사를 앞두고 종이비행기를 접고 있다.

이자와 시내버스 관련 페이스북, 120번 콜센터 상담, 노선개편안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위해 이용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며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노선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선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21개에서 노선에서 112개로 9개 노선이 감소했으며, 부분개편 27개, 폐지노선 32개, 신설노선 9개 노선 등 전체의 약 52.9%의 노선이 개편됐다. 시민호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번호체계는 기존번호 체계를 유지하되, 순환노선은 1자리, 전주완주 간선은 3자리, 완주군 자선버스는 2자리 자릿수를 맞춰 일부 노선번호가 변경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재난 안전정보 구축·개발사업' 선정

전북대가 국가재난 예방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용 교수(기록관리학대학원) 연구팀이 120억 원 규모의 '재난 안전정보 아카이빙 구축 및 기반 요소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그간의 각종 데이터와 정보들을 통합, 표준화 해 각종 재난을 예측해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통합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술개발 사업에는 전북대를 주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관련 기업인 b2m, KT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한다.

이에 전북대 컨소시엄은 향후 4년간 총 120억 원을 지원받아 기상 관측 정보에서부터 현장, 각종 영상 등 그간의 다양한 대규모 재난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재난 정보를 손쉽게 요

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등 자연 및 사회재난과 관련된 중앙정부 등에서 다양한 재난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변환,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제공해 향후 발생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재난 예측 기술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국민안전처 등의 기존 재난 정보 이용시스템 등과 연동해 재난안전 정보를 통합화할 계획이

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향후 안전 관련 유관 기관들은 신규 정보시스템 개발과 빅데이터, 기계학습,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기술 체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재난 관리와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민형 기자

"도시개발사업 결과 분석 시스템 구축"

이원구 의원 전주시의회 5분발언

전주시의회 이원구 의원이 도시개발사업 결과 분석에 사업수지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제안했다.

이원구 의원(서신동)(사진)은 18일 전주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 결과 사업의 수익 분석을 위해 사업수지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구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10년간 서부신시가지, 혁신, 하가지구 등 3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고, 현재는 호천지구, 만성지구, 예곡스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여의·천마지구의 경우 시가화예정지구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분석할 지표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이미 지난 2011년 전주시의회가 도시개발의 사업수지 분석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가 이제라도 도시개발 사업수지 분석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수지분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전주시에서 진행된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사업평가와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수지분석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의 미래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건지산 병충해 방제 작업 시급"

박혜숙 의원 전주시의회 5분발언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신속한 건지산 병충해 방제작업을 주문했다.

박혜숙 의원(송천1동)(사진)은 18일 전주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무더운 날씨에 건지산 일대에 흰가부병과 갈색날개매미충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건지산 일대 병해충 방제작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북대 학술림"으로 불리는 건지산은 인근 덕진공원과 함께 송천동, 덕진동, 호성동, 금암동, 인후동 주민은 물론 전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건지산에 최근 잦은 장마비와 무더위로 일대 숲 속에 흰가부

병과 갈색날개매미충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며 신속한 병충해 방제작업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흰가부병은 요즘 같은 시기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잎의 표면에 다각형의 황조록색 병반이 생기고 그 이면에는 하얀색의 얇은 균사층이 서리가 내린 것 같이 생성되며 비가 많을 때 다발한다. 흰가부병을 방치할 경우 식물 전체에 병반이 침투해 잎이 오그라지며, 거무스름해지고 황색을 띄며, 군사가 바람에 날려 주변의 수목과 작물에도 병해가 전염된다.

박 의원은 "건지산은 전주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지인데도 전북대학교 소유 국유지토 관리책임이 전북대에 있지는 이유로 전주시는 병해충 방제작업에 손을 놓고 있다"며 "병충해 확산으로 건지산 인근 농가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책임 유무를 떠난 전주시가 건지산 병해충 방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제20회 무주 반딧불축제

The 20th Muju Firefly Festival

2016. 8. 27(토)~9. 4(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반디랜드,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등

www.Firefly.or.kr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46
- 문의 063)320-5003-17

2017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2017 Muju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2017. 8. 22일 - 8월 30일)